

자가 기입 변증 설문문항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 조사

이재철 · 동상옥 · 김상혁 · 이영섭 · 진희정*

한국한의학연구원

General User's Understanding of Self-reported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Items

Jae Chul Lee, Sang Oak Dong, Sang Hyuk Kim, Young Seop Lee, Hee Jeong Ji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aims to reveal understanding of general users on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items from published papers. 132 questionnaire items were selected from five papers which stud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urvey items for pattern identification. 36 general participants answered understanding degree on each items, 11 experts also responded clinical utilizability on these. 6 questionnaire items had different recognition between general participants and experts, which were well used items to diagnose for experts, not easily understood to general participants. This study is the first work to analyze pattern identification's item understanding of general participants. Diversified subject population should be involved in further studies for assessment of general participants' understanding degree of questionnaire items.

Key words : Pattern identification, Understanding, questionnaire

서 론

변증논치(辨證論治)는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듣고 묻고 촉진하는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진단방법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시행한다. 한의사가 변증을 할 때에는 얼굴색, 체형, 혀의 상태, 맥 등의 객관적인 진단 지표와 더불어 소화, 대소변, 온도감각, 수면 등 환자의 자각적인 증상 정보를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며, 이를 바탕으로 침과 뜸, 한약 처방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변증이 한의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 객관화 및 표준화는 아직 연구단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김^{1,2)}의 연구에서는 한의 서적을 기반으로 구축된 기초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환자의 증상을 입력받고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강³⁾은 남녀의 생리적 발현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풍 변증 판별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는 표준화된 변증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증상 이외에도 다양한 계측을 통해 진단을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진(四診) 중 문진(問診)에 해당하는 설문을 중심으로 변증 표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송⁴⁾은 설문지를 통하여 경항통(頸項痛) 환자의 진단에 대한 타당도를 살펴보고, 권⁵⁾은 기존의 어혈변증 척도의 모호함과 검증 부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⁶⁾에 의해 개발 및 검증된 어혈변증 설문지를 오십견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설문의 경우 사용자의 상태를 비교적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고 변증에서 자각증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설문은 사용자가 스스로 응답하는 자가 기입 형태와 전문가가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나뉘지며, 자가 기입 방식의 경우 설문 문항의 이해도가 변증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에 사용되는 문항들이 한자어가 대부분인 한의 병명 및 증상을 바탕으로 도출되어 일상생활에서 낯설거나 생소한 표현일 수 있고, 이는 변증 과정에서 정확한 증상의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변증 설문지의 설문 문항을 추출하여 일반인의 이해도를 조사한 후 이해도가 낮은 문항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진희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 E-mail : hjjin@kiom.re.kr, · Tel : 042-868-9305

· 접수 : 2013/01/03 · 수정 : 2013/02/07 · 채택 : 2013/02/25

연구대상 및 방법

1. 설문 문항

일반인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추출할 대상 변증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¹⁾. 중풍, 치매 등 특정 질병의 변증 유형을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변증 설문지²⁾ 내적 신뢰도를 확보했거나 한의사의 진단과 비교를 통해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유 등^{7,8)}이 개발을 시도한 한열·허실 설문지와 한⁹⁾, 김¹⁰⁾이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변증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한 일반 변증 설문지인 기혈수(氣血水) 설문지를 선정하였다. 각 설문지의 설문 문항을 취합한 후 자가 기입이 가능한 문항을 사용했고 추출된 문항의 표현이 유사한 경우 한열 허실 설문지의 표현을 기준으로 통일했으며, 인체 각 부위별로 문항을 재분류하였다(Fig. 1)

이상의 취합된 설문문항 132개를 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이해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낮은 이해도의 변증 설문 문항이 임상에서의 활용 정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임상 한의사를 대상으로 임상적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모두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중복 선택은 허용하지 않았다.

1) 일반인 설문

각 문항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알아보는 설문지.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음.

2) 전문가 설문

각 문항에 대해 임상에서의 활용 중요도를 알아보는 설문지.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에서의 활용도가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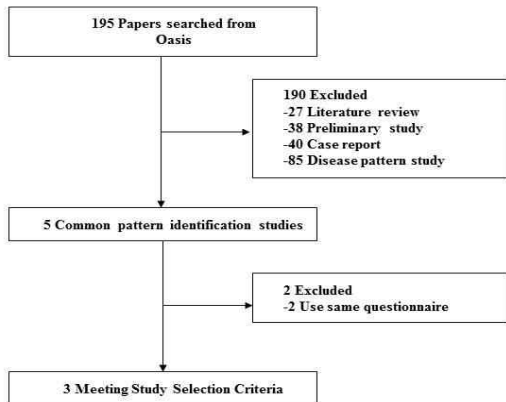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Literature Search Results.

2. 연구대상

변증 문항의 일반인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36명에게 설문지를 받았으며, 각 문항의 임상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11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받았다. Table 1은 일반인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및 학력의 분포를 나타낸다. 남녀별로 남자 14명(38.89%), 여자 22명(61.11%)이며, 대부분이 30대였다. 학력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44.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41.67%였다.

Table 2는 설문을 수행한 전문가의 임상 및 연구경력을 나타낸다.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이 7명(63.64%), 5년 이상이 4명(36.37%)이었으며, 연구경력은 5년 미만이 4명(36.37%), 5년 이상이 7명(63.64%)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Participants

Item	Male (n=14)	Female (n=22)
Age	20-29	9
	30-39	12
	40-49	0
	Over 50	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3
	Bachelor	13
	Master Degree, Ph. D	6
	No response	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Experts

Years	No. of Clinical experts	No. of Research experts
< 5	7	4
5 - 9	3	6
10 ≤	1	1
Total	11	11

3. 분석방법

문항의 일반인의 이해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들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였다. 전체 132개 문항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에서 낮은 이해도를 선택한 대상자의 수를 조사하고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증상 설문 문항 132개의 임상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면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11인의 전문가에게 활용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면평가 방법은 설문응답 과정에 수반되는 부정확한 정보, 편견, 주관성 등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를 조정하여 설문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전문가에게서 나타나는 관대화 또는 엄격화 경향으로 인해 설문문항이 상대적으로 이득 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응답의 공정성을 위해 응답결과를 조정해야할 때 사용한다¹¹⁾. 본 연구에서는 다면평가 방법 중 평균-표준편차 일치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변증 설문문항의 전반적인 일반인 이해도

전체 132개의 문항에서 평균이 4.5~5.0 사이의 문항은 1개(0.76%)였으며, 5.0~5.5 사이의 문항은 8개(6.11%), 5.5~6.0은 19개(14.45%), 6.0~6.5는 74개(56.49%), 6.5~7.0은 34개(25.95%)였다. 전체적으로 평균은 약 4.5~7.0점 사이였으며, 이해도 값이 1(이해도 낮음)~7(이해도 높음)점 사이였으므로,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보면 이해도가 낮은 문항은 없었다.

각 문항의 분산은 0.5~1.0 사이가 49문항(37.40%), 1.0~1.5는 57(43.51%), 1.5~2는 23(17.56%), 2.0 이상은 2문항(1.53%)이었다. 대부분 0.5~2사이(80.92%)이며, 1.5이상인 문항이 25개(19.08%)로 일반인의 이해도에서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

타나는 문항이 약 20%로 많은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이해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낮은 이해도(1~3점)를 선택한 대상자의 수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문항 이해도를 분석하였다.

전체 132개 문항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에서 낮은 이해도를 선택한 대상자의 수를 조사하고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낮은 이해도의 기준을 이해도 응답을 2 이하로 설정하였을 때(문항 이해도 A)와 이해도 응답을 3 이하로 설정하였을 때(문항 이해도 B), 각각 낮은 이해도를 선택한 대상자들이 포함된 문항들의 수를 살펴보았다. Table 3은 낮은 이해도를 선택한 대상자 수에 따른 문항 이해도 A와 문항 이해도 B의 분포를 나타낸다.

Table 3. Distribution of Questions

No. of responder	Item understanding A	Item Understanding B
1	36	40
2	16	22
3	4	11
4	3	7
5	1	4
6	1	1
7	0	1
9	1	0
11	0	1
Total	61	87

*Item understanding A: Number of Items which have 1 and 2 degree of understanding. Item Understanding B: Number of Items which have 1, 2 and 3 degree of understanding

Table 3을 살펴보면, 낮은 이해도를 가진 대상자가 한사람이라도 포함된 문항은 문항 이해도 A와 문항 이해도 B에서 각각 61개(46.56%) 또는 87개(66.41%)였으며, 3명 이상이 낮은 이해도를 선택한 문항도 문항 이해도 A와 B에서 각각 9개(6.87%), 25개(19.08%)가 나타났다.

2. 일반인의 이해도가 낮은 문항들

이해도가 낮은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10% 이상이 낮은 이해도를 선택한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문항 이해도 A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 이상, 문항 이해도 B에 대해서는 15% 이상의 응답자가 낮은 이해도를 선택한 문항을 살펴보았다.

문항 이해도 A에는 5가지 문항이, 문항 이해도 B에는 3개의 문항이 선택되었다. 문항 이해도 A와 B에 포함된 문항은 모두 6개로 "더워서 이불을 차내야 한다.", "최근 옆구리에 답답한 감이 있다", "허리가 시리다", "방광의 괄약근에 힘이 없는 느낌이 있다.", "대하가 있다", "시리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이었다.

3. 전문가의 활용도 평가

다면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가가 응답한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질문 문항의 응답 평균은 3.62~6.26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의 질문은 "최근 입 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들은 적이 있다"(평균 3.62), "얼굴색이 남보다 창백하다"(평균

3.82), "최근 입이 자주 마른다"(평균 3.88), "배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배가 아프다"(평균 3.94)이었다. 가장 높은 임상 활용도를 보인 문항은 "방귀가 자주 나온다."(평균 6.26), "최근 소화가 잘 안 된다"(평균 6.24), "의도하지 않게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평균 6.16), "다리나 팔에 쥐가 자주 난다"(평균 6.13), "배에 가스가 찬다" (평균 6.08)이었다.

4. 일반인 설문과 전문가 설문의 비교

일반인의 이해도가 낮은 문항의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파악해 보았다. Table 4는 선택된 문항 6개에 대한 전문가의 임상에서의 중요도 점수를 나타낸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Experts' Utilizability and General participants' Low understanding items response

Question No.	Questions	No. of 1, 2 Selection	No. of 1, 2, and 3 Selection	Average of Expert Utilizability
No. 4	더워서 이불을 차내야 한다.	4(11.11%)	4(11.11%)	4.713
No. 68	최근 옆구리에 답답한 감이 있다	5(13.89%)	5(13.89%)	4.813
No. 87	허리가 시리다	3(8.33%)	6(16.67%)	4.297
No. 94	방광의 괄약근에 힘이 없는 느낌이 있다.	6(16.67%)	7(19.44%)	4.209
No. 99*	대하가 있다	3(13.64%)	4(22.73%)	4.987
No. 120	시리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4(11.11%)	4(11.11%)	5.443

*Only female participants responded Item No.99

이해도가 낮은 3점 이하를 선택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질문 문항인 "대하가 있다"는 임상 활용도 평균이 4.987이었고, 다음으로 낮은 이해도를 선택한 사람이 많은 질문인 "방광의 괄약근에 힘이 없는 느낌이 있다."는 임상 활용도 평균이 4.209였다. 6문항 전체적으로 임상활용도 평균이 4.2~5.4로 높은 편이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변증 설문지의 문항을 추출한 132개의 변증 문항을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이해도와 전문가의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인의 이해도를 파악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각 변증 문항의 평균은 약 4.5~6.8, 분산은 0.5~2.37 사이였다. 평균 이해도 점수를 활용하여 각 문항의 이해도를 파악할 경우 모든 문항이 이해도가 낮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분산이 2점이 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균만으로는 문항의 이해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위해 이해도가 낮은 점수 1~3점을 선택한 대상자의 수를 파악하여 이해도가 낮은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모두 6개의 문항인 "더워서 이불을 차내야 한다.", "최근 옆구리에 답답한 감이 있다", "허리가 시리다", "방광의 괄약근에 힘이 없는 느낌이 있다.", "대하가 있다", "시리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를 이해도 낮은 문항으로 선택하였다. 이해도가 낮은 문항으로 선택된 6 문항은 전문가의 임상 활용도가 4.21~5.44로 높은 문항들이었다. 위 문항들은 변열(煩熱),

흉협고만(胸脇苦滿), 요산(腰痠)·요랭(腰冷), 소변불리(小便不利), 대하(帶下), 한통(寒痛) 등의 병명으로 변증에서 사용되는 주요 증상으로, 해당 문항들은 "최근 1개월간 잘 때 뒤워서 깐 적이 1번 이상 있다", "최근 1개월간 옆구리 부위가 답답한 감이 있었다.", "최근 1개월간 허리가 시큰거린다.", "최근 오줌을 참기가 쉽지 않았다.", "최근 3개월간 생리 기간에 냉이 있었다.", "최근 1개월간 시리는 느낌의 통증이 있었다." 등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통증을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McGill 설문지의 경우 5점 척도로 현재의 통증 강도 및 통증의 감각적 측면,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며¹²⁾ 피로 측정에 활용되는 Fatigue Severity Scale은 7점 척도로 지난 1주일간의 육체적·사회적 피로 및 업무, 생활에서 불편을 인지하는 여부 등의 측면에서 피로를 측정한다¹³⁾. 이와 같이 변증 설문을 설계할 때도 증상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 및 양상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되거나 성별·연령에 따라 응답정도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반면, 전문가의 활용도가 평균 3점 이하인 문항은 “잇몸이 부어 아프다”(2.64점), “피부에 핏줄이 많이 보인다.”(2.91점), “치아가 아프거나 시리다”(2.91점) 3가지로 나타났다. 이 3가지 문항의 일반인 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낮은 이해도(1~3점)를 선택한 일반인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이 전문가의 및 내적 일치도 등을 검증하여 개발된 변증 설문지에서 추출된 문항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대부분의 일반인 응답자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거나 청장년층으로, 연령 및 학력 수준을 확대했을 때 이해도가 낮은 문항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계점으로 보인다.

부록: 일반인 변증 설문문항 이해도 조사 항목

1.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린 증상이 있다.
2.	찬바람이나 찬 기운, 또는 추운 곳이 싫다.
3.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4.	뒤워서 이불을 차내야 한다.
5.	시원하고 서늘한 기운이나 자극이 좋다.
6.	몸에 열이 나고 더운 증세가 있다.
7.	평소 감기에 잘 걸리는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8. 전신	평소에 기력이 약해질 정도로 과로를 많이 했다.
9.	최근에 쉽게 지치고 더 피곤하다.
10.	체중이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11.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날 때가 있다.
12.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여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13.	현재 아프기 시작하지 일주일 이상 넘지 않았다.
14.	현재 앓고 있는 병(또는 문제)이 증상이 뚜렷하고 격렬하다.
15.	평소에 잘 놀라는 편이다
16.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몸이 짜뿌듯할 때가 많다
17.	잠들기가 힘들거나 깊게 잠자지 못하고 자주 깬다.
18. 피부	피부가 윤기가 없이 꺼칠꺼칠하다.
19.	겨울철에 피부가 잘 툰다.
20.	피부가 얼얼하거나 저린 감이 있다
21.	몸에 멍이 잘 든다
22.	피부에 실핏줄이 많이 보인다
23. 머리	머리에 뭔가 덮어씌운 듯한 무거운 감이 있다
24.	얼굴색이 남보다 창백하다
25.	얼굴색이 남보다 붉은 편이다.

26.	얼굴색이 남보다 어둡다
27.	얼굴색이 남보다 누런 편이다
28.	집중이 잘 안 된다
29.	최근 머리가 자주 아프다
30. 머리	최근 갑자기 현기증이 자주 일어난다
31.	최근 자주 잠이 안 온다.
32.	최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33.	얼굴이 자주 붓는다.
34.	일어서면 어지러워 눈이 핑그르르 도는 일이 있다
35.	눈 주변이 푸르스름하며 특히 눈 밑이 자주 거무스름해진다
36.	눈이 가렵거나 아프거나 무엇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든다
37. 눈	최근 눈이 쉽게 붉어지거나 피로해진다
38.	빛이 부시거나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자주 난다
39.	눈이 건조하거나 뻑뻑하다
40.	눈 주위가 잘 붓는다.
41.	뭉고 투명한 콧물이 있다.
42.	누렇거나 짙은 콧물이 있다.
43. 코	콧김이 더 거칠거나 뜨거워졌다.
44.	최근 코가 자주 막힌다
45.	최근 코피가 자주 나온다
46.	갈증이 있건 없건 물을 마시기가 싫다.
47.	갈증이 나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48.	기분이 상쾌하지 않고 자꾸 한숨을 쉬게 된다
49.	입술이 푸른색을 띄는 경우가 많다
50.	치아가 아프거나 시리다
51. 입	잇몸이 부어 아프다
52.	최근 입이 자주 마른다
53.	최근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들은 적이 있다
54.	입술이 잘 갈라지고 툰다.
55.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
56.	뭉은 가래가 있다.
57.	누렇거나 짙은 가래가 있다.
58. 귀	귀에서 소리가 난다
59.	최근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60.	목에 뭔가 걸려서 뻘거리거나 삼키려 해도 잘 안 된다.
61.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62.	목이 아프다.
63. 목	목이 긴장되어 있다
64.	최근 목이 급히 붓거나 덩어리가 만져진다
65.	최근 목이 자주 마른다
66.	최근 기침이 자주 나온다
67.	최근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한 증세가 일정하게 지속된다.
68.	최근 옆구리에 답답한 감이 있다
69. 가슴	가슴이 아프다
70.	옆구리가 당기듯이 아프다
71.	자주 숨이 차다
72.	최근 심장이 자주 이유 없이 뛰는다.
73.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74.	배가 차갑고 서늘한 편이다
75.	배가 부른 감이 든다
76.	배에 힘이 없는 편이다
77.	최근 아랫배가 자주 아프다
78.	멍치 밀이 누르면 통증이 있다
79. 배	최근 소화가 잘 안 된다
80.	최근 식욕이 없어졌다
81.	메스껍다
82.	배에 가스가 찬다
83.	최근 자주 음식을 토한다.
84.	속이 쓰린 적이 있다
85.	최근 신트림이 자주 있다
86.	복부에 덩어리가 느껴진다.
87. 허리	허리가 시리다
88.	허리가 아프다
89. 비뇨생식기	소변이 더 맑고 투명해졌다.

90.	소변이 색이 더 진해졌다.		
91.	소변 볼 때 아프다.		
92.	최근 소변양이 늘어난 것 같다.		
93.	최근 소변양이 줄어든 것 같다.		
94.	방광의 괄약근에 힘이 없는 느낌이 있다.		
95.	소변을 본 뒤에도 소변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있다		
96.	성행위시 발기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97.	최근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다	비뇨 식기	
98.	월경 이외에 성기에서 피가 나온다		
99.	대하가 있다		
100.	월경이 일정하지 않다		
101.	성교 시에 출혈이 있다		
102.	의도하지 않게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103.	똥은 대변을 자주 보는 편이다.		
104.	평소에 변비가 잦은 경향이 있다.		
105.	평소에 설사가 잦은 경향이 있다.		
106.	항문이 자주 나온다.		항문
107.	최근 대변색이 검은 편이다.		
108.	항문에서 피가 나온 적이 있다.		
109.	변을 볼 때 아프다.		
110.	손발이 잘 시리거나 차가운 편이다.		
111.	손바닥이 덥고 답답한 증세가 있다.		
112.	다리나 팔에 쥐가 자주 난다		
113.	손바닥이 붉은 편이다	사지	
114.	어깨나 무릎 관절통이 있다		
115.	무릎이 시리다		
116.	무릎이 아프다		
117.	손발이 부었다		
118.	손발이 뻣뻣하다.		
119.	어깨가 아프다		
120.	시리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121.	따뜻하게 하면 정도가 감소하는 통증이 있다.		
122.	뜨겁고 화끈거리는 느낌의 통증이 있다.		
123.	아픈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누르면 통증이 감소했다.		
124.	통증이 만지거나 누르면 더 불편합니다.		
125.	발목이나 손목, 허리가 빠듯한 일로 증상이 있다	통증	
126.	최근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등 심하게 부딪친 일로 증상이 있다		
127.	일정 부위의 저림 증상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다.		
128.	몸이 쑤시듯이 아프다		
129.	야간에 쑤시고 아파서 잠자기 힘들다		
130.	최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의 통증이 있다.		
131.	배가 더부룩하게 팽팽해져 있는 느낌이 있다		
132.	배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배가 아프다		

결 론

변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설문문항의 임상 활용도를 바탕으로 변증 설문 문항 자체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은 표준화된 변증 설문을 개발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환자의 자각 증상 진단을 설문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언어·심리·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변증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에 발표된 변증 설문 문항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평가한 최초의 연구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변증 설문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정 설문문항이 일반인 이해도가 낮고 전문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 문항은 변증 설문 개발에서 제외를 해야 할 것이

며, 전문가의 활용도는 높으나 일반인의 이해도가 낮다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언어학·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문항을 수정·개발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목적사업인 '동서의학 융합의 미병 진단기준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Grant No. K13070).

참고문헌

- Kim, S.K., Jang, H.C., Kim, J.H., Oh, Y.T., Kim, C., Yea, S.J., Song, M.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iagnosis System Based on Basic Ontology.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4(6):1111-1116, 2010.
- 한국한의학연구원.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지능형 정보체계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년도 최종연구보고서.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Kang, B.K., Lee, J.S., Ko, M.M., Kwon, S.H., Bang, O.S. Discriminant Model V for Syndrome Differentiation Diagnosis based on Sex in Stroke Patients,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5(1):138-143, 2011.
- Song, I., Lee, G.M., Hong, K.E. Research on Oriental Medicine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System by Using Neck Pain Questionnaire.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8(3), 2011.
- Kwon, S.A., Lee, J.W., Kim, M.J., Song, J.Y., Sung, W.S., Seo, B.K., Woo, H.S., Baek, Y.H., Park, D.S. A Study of Blood Stasis Pattern for Frozen Shoulder Using Blood Stasis Pattern Questionnaires (BSPQ) and the Relationship of Pain, Shoulder Range of Motion and BSPQ Score,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8(4), 2011.
- Yang, D.H., Park, Y.J., Park, Y.B., Lee, S.C. Development of Questionnaires for Blood Stasis Pattern,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is 10(1):141-152, 2006.
- Ryu, H.H., Lee, H.J., Jang, E.S., Choi, S.M., Lee, S.G., Lee, S.W. Study on Development of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2(6):1410-1415, 2006.
- Ryu, H.H., Lee, H.J., Jang, E.S., Lee, S.W., Lee, K.S., Kim, J.Y. Study on Deficiency-Excess Pattern Questionnaire Development Possibility,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3(3):534-539, 2009.
- Han, S.Y., Lim, J.H., Ryu, J.M., Jang, S.Y., Kim, H.K., Lee, J.S., Yoon, S.H., Kim, J.S., Ryu, B.H., Ryu, K.W. Analysis of

- symptom pattern through comprehensive diagnosis of Qui Xui Shui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Korean J.Orient.Int.Med 25(2):224-237, 2004.
10. Kim, H.K., Yoon, S.H., Lee, J.S., Eom, K.H., Lee, S.Y., Kim, S.Y., Hur, W.Y., Kim, J.S., Ryu, B.H. Correlation Study between Fetigue Degree and Comprehensive Diagnosis of Qui Xui Shui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Korean J.Orient.Int.Med 27(2):510-520, 2006.
 11. 오성호. 다면평가제의 유용성과 한계. 「계간 인사행정」. pp 14, 28-32, 2003.
 12. Carol, S. Burckhardt, Kim D. Jones. Adult Measures of Pain. Arthritis Care & Research 49(5):96-104, 2003.
 13. Sarah Hewlett., Emma Dures., Celia Almeida. Measures of Fatigue. Arthritis Care & Research 63(11):263-286, 2011.